

해역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청산도 슬로관광*

곽수경**

【 목 차 】

I. 해역과 섬	제2장. 슬로길
II. 완도해역과 청산도	제3장. 슬로걷기축제
III. 해역네트워크의 작동수단으로서의 슬로관광 제1장. 슬로시티	IV. 해역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한 제언

I. 해역과 섬

기존 육지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해양에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구는 70%의 바다와 30%의 육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언어는 시대와 사회,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구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육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육지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금 해구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범주가 해양으로 넓혀지고 그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해양’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국가주의, 지역주의적 경계를 넘어 ‘해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모모키 시로(桃木至朗) 같은 학자들이 해역아시아라는 명명을 제안하고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과 같은 육지의 시점이 아니라 이들이 공유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새로운 덩어리로 보고 역사를 해석하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그러하다. 해역은 해양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그것을 단순히 바다 위의 일정 구역이라고 했을 때는 해양보다 좁은 범주이지만, 섬, 해양, 육지와 같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 또한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해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보려고 하며 해역아시아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해역사(海역史)는 항해, 무역, 해적, 해상민 등과 같은 바다의 세계 그 자체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다를 둘러싸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있는 육지들 사이의 교류와 투쟁, 해상과 육상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시아사에는 북·동아프리카, 남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해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바다와 섬, 연안을 포함하며, 해역 연구는 그들의 상호작용과 영향력이 미치는 내륙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섬은 해역의 한 부분으로, 바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바다와 섬과 육지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섬은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리적,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종종 섬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섬은 바다로 인해 고립되기도 하지만 바다를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지로 섬은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대부분 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양영토로서, 자원의 보고로서,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주목받으며 다방면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사람들의 여가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섬 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지와와의 연계도 많아지고 있다. 그것을 적극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완도해역에 위치한 청산도를 들 수 있다.

다도해 최남단에 위치한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남짓을 더 가야 하는 곳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과거에는 고등어파시와 삼치파시가 형성되어 전국각지에서 어선들이 몰려들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사람들도 떠나고 기억에서도 잊혀져 갔다. 한동안 시간이 비껴간 듯 한적했던 이 섬은 1990년대에 들면서 다시 육지와의 연계를 준비해나갔다. 천혜의 자연과 구들장논, 초분, 해녀 등 청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나가는 한편 이를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담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청산도라는 이름을 알려나갔다. 2007년 12월 1일에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증 받으면서 육지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고, 슬로길을 조성하고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을 불러들임으로써 육지와의 네트워크 만들기에 성공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섬-바다-육지로 이루어지는 해역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청산도 슬로관광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청산도가 슬로시티로 인증 받고 슬로길을 만들었으며 슬로걷기축제를 실시함으로써 육지 사람들을 청산도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슬로’라는 테마로 엮여있는 이 세 가지를 슬로관광을 구성하면서도 청산도가 육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작동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보고자한다. 이들의 의미와 역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산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완도해역과 청산도 바닷길을 살피고, 다음으로 각각 슬로시티와 슬로길, 슬로걷기축제의 역할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지 조사와 주민들과의 인터뷰, 연구자가 직접 슬로길 전체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고 슬로걷기축제에 참가하여 관찰 조사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²⁾ 청산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과

1) 모모키 시로 엮음/최연식 옮김(2019) 『해역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pp.10-11 참고

2) 현지조사는 2016.8.22-25, 2016.11.4., 2017.4.12.-13, 2017.7.26.-27, 2017.11.8-11에 걸쳐 총 5회 실시했다. 이중 처음 2회는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이 강하며 이후 3회는 슬로길

거 민속, 역사, 구들장논과 어업 등 자원과 관련한 분야에서 일부 이루어졌고 슬로시티로 인증 받은 후 관광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특별한 목적 하에 집필된 일부 논문을 제외하면 연구의 공백을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는 청산도라는 섬을 해역의 범주로 가져오고 해역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섬과 바다와 육지의 관계를 살피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완도해역과 청산도

해역은 사전적으로 ‘바다 위의 일정 구역’이라고 정의되는데, 공간적으로 그것을 나누는 경계를 확정하고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매우 광범하고 관습적인 공간인식을 바탕으로 사용된다. 가령 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관할해역을 가리킬 때는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데 유엔해양법협약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으로 관할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은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³⁾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해역과 해상경계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며 각자 주장하는 해상경계가 상이하여 분쟁의 여지가 많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⁴⁾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완도해역, 청산도해역 등은 행정적으로 해상경계를 정확히 확정하여 범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해당지역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바다라는 의미를 따른다.

완도는 전라남도에서新安군과 여수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총 258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데⁵⁾ 이들이 완도해역을 구성하고 있다. 전체 섬 중에서 유인도는 54개로⁶⁾, 윤선도가 제주도도 가던 도중에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안착했다는 보길도,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신지도,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 <섬총사>를 통해 대중에게 친숙해진 생일도,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슬로시티 청산도 등이 있다. 고래로부터 완도(즉 淸海)는 장보고가 진(鎭)을 설치하여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신라와 당, 일본 간의 교역로를 열었던 무역거점이었다. 장보고는 청해진-흑산도-적산포(산동반도)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오가며 무역활동을 했고 다시 청해진-하카타(규슈)-오사카-교토를 오가며 대한해협과 세토내해를 헤치고 다녔는데 중국과 일본상인들도 이 해로를 따라 청해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장보고의 청해진 무역

전체 코스를 직접 걸어보고 슬로걷기축제에 참가하여 슬로길과 슬로걷기축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 3)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kcom/cnt/selectContentsPage.do?cntId=32000000> (마지막 검색일 : 2020년 2월 6일)
- 4) 자세한 내용은 최윤수·김재명·김현수·박병문(2012) 『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한국공간정보학회, pp.45-56 참고할 것
- 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2016), 『전라남도 도서종합개발계획 발전방향』, pp.14-15 참고
- 6) about 전남의 섬 http://islands.jeonnam.go.kr/viewer/A_isle/isle/view.aspx?isle_idx=30 (마지막 검색일: 2020년 2월 6일)

활동은 서남해지역을 동아시아 해로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부각시켰다. 고려시대에는 서남해지역에서 흑산도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로가 더욱 활기를 띠어 흑산도-산둥반도/흑산도-영파(寧波)에 이르는 해로까지 활성화되어 적산포/영파-흑산도-완도-하카타-오사카를 오가는 해로가 완성되었다.⁷⁾ 이처럼 완도는 일찍이 장보고시대에 일종의 자유무역거점항으로서 재당신라인들의 정착촌과 강진, 제주, 규슈 등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⁸⁾ 동북아해역의 핵심거점으로, 한중일 3국간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역동적으로 실현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수탈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 완도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철제 증기선인 후시키마루(伏木丸)와 기미가야마루(君が代丸)가 월 2-3회 완도항과 오사카 항로를 운항했고, 조선기선회사의 선박이 부산에서 출발하여 여수와 완도를 경유해서 목포로 왕래했다. 이후 순항선조합 소속의 완도환이 완도해역의 섬들에서 채취한 김을 완도로 운반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의 김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완도해역의 섬들을 오가던 남봉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완도 관내를 벗어나 완도-해남 남창 어란진-벽파진-목포까지 운항하였다. 한국전쟁기를 지나며 육상교통이 편리해지게 되자 여객 수요가 감소하여 1961년 순항선조합이 해체되고 민간기업이 완도 바닷길을 책임지게 되었다.⁹⁾

오늘날 완도항은 한반도 최남단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중국과 동남아 교역의 창구로서 서남해안과 동중국해로 출어하는 어선의 모항기능을 하며 남해안 해상교통의 거점항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¹⁰⁾ 하지만 정기국제무역항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해남, 고흥, 여수, 제주 등 완도해역과 연결되는 섬들을 오가는 여객선이 완도항을 드나들며 섬과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근의 섬들이 하나둘 육지와 연결되고, 다시 다른 섬들과 연결되어 가는 동안에도 완도해역에서 변함없이 바닷길을 지키며 가장 활발하게 육지와 네트워크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산도이다. 청산도는 완도에서 19.4km 떨어진 다도해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¹¹⁾ 오늘날의 산업과 무역구조 등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일본과 가깝고 수산물이 풍부하여 일찍이 우리나라 남해안 연근해어업기지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곳이다. 그것은 1930-1950년대 말까지는 고등어파시로, 1960-1970년대까지는 삼치파시로 이름을 날렸는데, 사진 해설과 신문기사 등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5-6월 성어기 때는 한일 어선 700-800척이 모여들어 약 100,000원의 어획고를 올린다. 육상에는 잡화상, 요리점들이 임시 개업하여 복새통을 이뤄 번성하는 항구가 된다. 본 섬은 영광군 위도의 조기잡이, 여수 나로도의 갯장어어업과 함께 전남 3대 어장으로 이름나 있다.¹²⁾

7) 강봉룡(2016)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 景仁文化社, pp.231-233 참고

8) 윤명철(2005.8) 「동아지중해, 장보고의 나라」, 『월간말』, p.105 참고

9) 김준(2014) 『섬문화답사기-완도편』, 보누스, pp.29-31 참고

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http://mokpo.mof.go.kr/content/view.do?menuKey=383&contentKey=116> (마지막 검색일 : 2020년 2월 6일)

11) about 전남의 섬 http://islands.jeonnam.go.kr/viewer/A_isle/isle/view.aspx?isle_idx=30 (마지막 검색일 : 2020년 2월 6일)

12) 최성환(2017) 「일제강점기 청산도 고등어 어업의 실태와 영향」, 『서강인문논총』50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27 재인용

삼치는 잡히는 대로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청산도 앞바다에는 운반선 20여 척이 늘 대기 중이었습니다. 당시 청산도는 완도보다 더 중요한 해상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청산도를 기점으로 한 여객선이 목포로 2척, 부산으로 3척이나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섬들이 하루 한 척도 제대로 배가 다니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큰 섬인 완도 사람들도 청산도로 술을 마시러 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채 3천 명도 못되지만 1973년 청산도 인구는 1만3천5백 명이나 됐습니다.¹³⁾

위의 인용문들은 각각 고등어파시와 삼치파시가 흥성했던 시절 청산도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전국각지에서 어선들이 청산도해역으로 몰려들면서 도청항 주변을 중심으로 여관, 요릿집과 술집을 비롯한 상업구역이 형성되고 그들만의 문화가 생겨났다. 당시 청산도는 완도보다 더 중요한 해상 교통의 요지로 작용하면서 관련 선박과 사람들이 부산과 목포 등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을 오가며 왕성한 해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그동안의 오랜 남획으로 인해 청산도해역의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어선어업이 중단되었고 자연스레 인적도 뜸해졌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멈춘 듯했던 청산도는 멈추었던 그 시간을 ‘슬로섬’이란 테마로 재구성하여¹⁴⁾ 슬로관광을 탄생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 청산도는 다도해에 속하면서 완도에서 제주도로 이어지는 해로상에 위치한 제주도로 가는 가장 빠른 뱃길을 연결하는 섬¹⁵⁾이지만 현재 청산도-제주도를 오가는 여객항로는 없다. 완도해역의 많은 섬들이 하나둘 연륙교가 놓이면서 육지와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청산도는 완도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통해서 육지와 연결되고 있다.

Ⅲ. 해역네트워크의 작동수단으로서의 슬로관광

과거 화려한 해역네트워크를 자랑하던 청산도는 한동안 침체기를 거친 후 지금은 슬로관광을 통해 다시 육지와 연결을 수행하고 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산도의 슬로관광은 시간이 멈춘 듯한 청산도의 자연친화적이고 예스런 모습을 관광의 매력요인으로 승화시켰다. 여기에서는 슬로관광이란 “슬로시티의 이념 철학에 부응하면서 일반 대중 관광과는 차별성이 있고 지역문화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한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¹⁶⁾이라는 정의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슬로시티, 슬로길, 슬로걷기축제를 구성요소로 하여 구현된다고 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프레시안』2020.2.3

14)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에서 청산도의 테마를 슬로섬으로 설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2011)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p.13 참고)

15) 주희춘(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p.99 참고

16) 박희정·장희정·손대현(2008) 『슬로우 투어리즘 참가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제20집 제2호,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p.46

제1장. 슬로시티

청산도는 2007년 말 신안군(중도면), 장흥군(유치면), 담양군(창평면 삼지천마을)과 함께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증 받았다. 2020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5개의 슬로시티가 있다.¹⁷⁾ 슬로푸드 먹기와 느리게 살기 운동으로부터 탄생한 슬로시티는 “점점 가속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전통성에 기초한 여유로운 생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적 도시 및 지역발전 모델로 평가”¹⁸⁾받는데, 슬로시티 선언문에서 느낌을 알며 전통을 존경하는 고장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기계화, 도시화되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지친 현대인들이 유유자적하고 느린 삶을 갈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에게 여유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슬로시티이며, 사람들이 슬로시티 방문을 통해 기대하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슬로시티들은 슬로시티의 취지와 이념을 훼손하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특정시기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자연 생태가 훼손되며, 무분별한 시설물 건립, 패스트푸드점 도입, 쾌속선 운항, 연륙교나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슬로시티에 반하는 현상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¹⁹⁾ 올바른 정책과 운영방향의 부재로 인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대량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본래의 정신을 상실했고, 슬로시티란 이름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슬로시티를 찾는 관광객 역시 슬로시티를 추천 관광지 인증마크쯤으로 여기고 몰려들다 보니 ‘느림’을 지향해야 할 슬로시티들이 그 어느 도시보다 ‘빠르고 번잡한’ 도시로 변질되어 갔고, 환경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들어온 투기꾼들과 원 주민들, 주민과 주민 간의 마찰과 불협화음 속에 공동체적 삶은 위협받고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청산도와 함께 처음으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던 장흥군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 인증 평가에서 탈락했고, 국제연맹본부 최초의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슬로시티로 2010년 처음 인증 받았던 전주한옥마을도 탈락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장흥군은 평가에서 실적 증명자료 미비, 관련 사업과 슬로시티의 연관성 부족, 별도 부서와 슬로푸드 식당 부재, 낮은 공무원 인식 등을 지적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탈락한 궁극적인 이유는 지나친 상업화로 슬로시티 정신을 훼손한 채 슬로시티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었다. 탈락의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전주한옥마을도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한옥들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데다가 접근성이 좋아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복세통을 이루고 급격히 상업화되면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²⁰⁾ 이들이 겪었던 실패와 위기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17) 한국슬로시티본부 홈페이지 참고. 자세한 것은 곽수경, 앞의 글, p.178 참고할 것

18) 박경문·조영태·최상희·장인석(2008) 『국내 슬로시티 발전방안 연구』, 『地理學研究』제42권 제2호, 국토지리학회, p.238

19) 정성문(2013) 『슬로시티 라이프 사이클 지표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전략-슬로시티 증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경영 및 관광 전공 석사학위논문. p.24

20) 『문화일보』2013.7.5, 『경향신문』2013.9.1, 『연합뉴스』2017.4.30 등이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2년 30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2008년 13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2016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연합뉴스』앞의 기사)

라 슬로시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슬로시티 본부는 청산도는 직접 가보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슬로시티로 인증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섬 전체가 하나의 전래 동화책 같은 마을이라고 밝혔다.²¹⁾ 그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청산도는 특유의 자연친화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과 아름답고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 일찍이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영화와 텔레비전 등을 통해 여러 번 소개되었다.²²⁾ CNN 선정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33선(4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가을휴양철 테마섬 설 섬,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가장 아름다운 농촌마을(상서마을), 환경부 선정 국립공원 최고 명품마을(상서마을) 등과 같은 타이틀은 청산도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재확인시켜 주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초분, 돌담, 구들장논, 독살, 고등어파시, 해녀와 같은 귀중한 인문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들장논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구들장논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²³⁾ 지금은 구들장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²⁴⁾. 이런 것들은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증 받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고, 슬로시티라는 수식어는 사람들이 청산도를 찾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2007년 66,978명이던 청산도 방문객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이듬해인 2008년에는 84,123명으로, 2009년에는 120,90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이런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청산도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독특한 인문자원을 간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슬로시티 중에서 유일하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이다.²⁵⁾ 특히 다도해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다른 슬로시티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부 자본의 유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민들 간의 공동체적 삶과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가 잘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청산도 역시 다른 슬로시티들이 범하고 있는 유사한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관광객의 양적 팽창에 집착함으로 인해 육지에서 항구로, 다시 섬으로 이동해가며 느낌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마저 속도로 밀어붙임으로써 ‘공기, 풀, 돌, 주민의 삶 하나하나가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섬’²⁶⁾이 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하여 다른 슬로시티들과 구별되는 섬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고 슬로시티라는 이름은 색을 바란 지 오래되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오게 하고 그것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게 하지도 못하였다.

21) 한국슬로시티본부 홈페이지 <http://www.cittaslow.kr/kor/> (마지막 검색일 : 2020년 2월 6일)

22) 청산도에서 촬영된 영상작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곽수경(2017) 『청산도의 <서편제> 마케팅과 슬로마케팅』, 『동북아문화연구』 제5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173-174 참고할 것. 이 논문에서 밝힌 것 외에 KBS2에서 방영되었던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2013)도 있다. 《최고다 이순신》은 2013년 3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50부작으로 방영되었는데 37회분이 청산도 지리청송해변과 국화리 일원에서 촬영되었다.

23) 자세한 것은 곽수경, 위의 글, p.178 참고할 것.

24) 『연합뉴스』2020.2.11

25) 신안군 중도 역시 섬이기는 하지만 2010년 3월 중도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26) 『연합뉴스』2016.6.18

제2장. 슬로길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기계와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며 숨 가쁘게 생활한다. 하늘 끝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고층건물들, 꼬리에 꼬리를 문 자동차 행렬과 매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는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기기들 속에서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서 치유, 위로, 위안, 힐링과 같은 단어가 핵심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은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補가 낫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보다 걷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다. 다산 정약용 역시 걷는 것을 ‘청복淸福’ 즉 ‘맑은 즐거움’이라고 보았다.”²⁷⁾ 오늘날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지친 심신을 치유하려는 수요는 전국적으로 걷기열풍과 다양한 ‘길’을 탄생시켰다. 그 기폭제가 되었던 제주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강화 나들길, 지리산 둘레길, 군산 구불길, 남해 바래길, 동해 해파랑길, 소백산 자락길, 강릉 바우길, 관동 팔경길 등 전국적으로 많은 길이 생겨났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길들이 생기고 있다. 이처럼 숲길, 산길, 해안길과 같이 자연을 소재로 시작된 걷기 위한 길은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도시의 골목길로까지 확장되는 등 그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이미 중앙부처가 지원하여 조성된 도보여행길이 전국적으로 총 390개 845코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도보여행길이 196개, 773코스가 있다고 하였고²⁸⁾ 그 이후로도 무수한 길이 조성되고 있어 더 이상 그 종류나 개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이다.

청산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 슬로시티에 어울리는 슬로길을 조성하였다. 제주도 올레길이 본래 있던 길을 이용하여 그 속에 제주의 문화가 녹아있도록 한 것처럼²⁹⁾ 청산도 슬로길 역시 관광객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마을 간 이동로를 전체 11코스 17개 길로 연결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하는 의미로 이름 붙였다. 그것은 2010년 완성되어 이듬해에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인증 세계슬로길 1호로 지정 받았는데, 청산도는 이밖에도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 2016년 행정자치부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다도해의 걷기여행길 10선’과 같이 길과 관련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 길이 지닌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슬로길은 길이 지닌 풍경, 길을 걸다가 만나는 사람, 길에 얽힌 이야기와 어우러져 걸을 수 있게 조성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전체 코스 안에 해안누리길³⁰⁾, 돌담길, 숲길, 해돋이와 해넘이길, 단풍길 등 다양한 경관을 소재로 하고 구들장논,

27) 신정일(2010) 『가슴 설레는 걷기 여행』, 랜덤하우스, p.5

28) 정경희·김소중·김채령·한이화(2013) 『지속가능한 도보여행으로서의 인천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교류연구』2-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pp.145-146 참고

29) 올레의 본뜻은 마을길과 집을 이어주는 돌담길이다.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마을과 오름과 바다를 이어 새로운 문화 코드로서의 올레를 만든 것이다. 올레는 제주의 속살을 만져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강민철(2010) 『올레감수광』, 컬처플러스, p.5)

30) 해안누리길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전국의 걷기 좋은 해안길을 선정한 것으로 53개가 있다. 청산도 슬로길의 1-7코스가 해안누리길로 지정되어 있다.(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2015) 『해

초분, 돌담, 파시 등 청산도의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천천히 걷는 동안 청산도의 매력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슬로길은 슬로시티 정신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그것의 조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관광객들이 이 길을 잘 걷지 않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슬로시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산도를 걷지 않아도 되는 섬으로 인식시키고 실지로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슬로걷기축제이며 영화 <서편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새로운 지역홍보전략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 슬로걷기축제는 ‘느리게 걷기’를 표방하면서도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부 차량의 유입을 허용함으로써 걷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서편제> 촬영지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하면서 슬로길의 인지도를 미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주지하다시피 청산도는 한국영화 최초로 백만 관객을 동원했던 <서편제>의 명장면을 촬영했던 곳이다. 2000년대 중반 안도군이 영상매체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영상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사실을 청산도 홍보에 적극 활용한 결과 청산도는 <서편제> 촬영장소로 명성을 얻고 전국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이후 많은 텔레비전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등이 거의 모두 <서편제> 촬영장소와 동일한 구역에서 촬영되어 이곳은 청산도를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고,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가보아야 할 필수코스가 되었다. 서편제길로 명명된 이 구역은 슬로길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관광객의 관심은 이 구간에 국한된 채 전체 슬로길로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관광객들은 애초부터 여유롭게 슬로길을 걷기보다는 서편제길을 중심으로 일부 장소를 구경하고 차량으로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일정으로 청산도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청산도 슬로시티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임종일씨는 슬로길 전체 코스를 돌아보려면 2박 3일의 일정이 필요하지만 방문객의 70-80%가 당일 관광객으로, 패키지 관광으로 3시간 정도만 머물고 음식도 자신들이 가져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³¹⁾ 청산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지렁이처럼 꼬부라진 이정표를 따라 걷다가 힘이 부치면 쉬어가고 꼬박 2박 3일이 걸린다”³²⁾라고 말하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청산도는 한나절 동안 승용차로 돌아보기 좋은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슬로길 전체 코스 중에는 도보여건이 좋지 못한 구간이 적지 않아 걷기가 힘들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가령 슬로길 1-7코스로 지정되어 있는 해안누리길 구간은 섬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지만 걷는 사람이 없다면 무서운 감이 있고 산짐승이 나타나기도 하며 길이 험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안전의 우려도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2코스 사랑길은 길이 험해서 서로 손을 잡아주어야만 지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싹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지만 낭만적인 스토리와는 달리 대단히 위험하다. 9코스 단풍길은 청산도 여인들이 단풍을 구경하러 도시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청산도 안에서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하는데, 정작 길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인도와 차도를 겸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행인이 적다보니 과속차량이 많아 사고의 위

안누리길-이야기 따라 걷는 길』, 하이미디어퍼앤아이)

31) 『전북일보』2016.10.28

32) 『연합뉴스』2016.6.18

힘이 상존한다.

결국 청산도가 <서편제>를 이용해서 청산도를 알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새로운 지역 홍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다른 자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한 채 슬로걸기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함으로써 슬로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서편제길만 부각시켜 버렸다. 슬로걸은 육지의 관광객이 천천히 걸으면서 청산도의 멋과 문화를 이해하고 청산도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길을 정비하여 걷게 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슬로걸기축제

슬로걸기축제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인증을 기념하고 관광객들에게 느낌의 미학을 선사하기 위해 완도군이 주최하여 2009년 세계슬로우걸기축제라는 이름으로 신지도와 청산도에서 하루씩 개최되었다. 이듬해부터 청산도 슬로우걸기축제라고 명칭을 바꾸고 청산도에서만 개최했으며 그 기간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슬로걸기축제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는 관광객을 해당지역으로 유인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는데, 관광객 수의 추이를 보면 슬로걸기축제가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대중관광을 유도하는 대규모 축제가 슬로시티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청산도 방문객 수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 1> 청산도 방문객 수(2005년-2018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월	1,468	146	2,258	2,895	7,169	5,578	6,709	14,558	10,884	19,185	9,709	9,774	11,825	8,529
2월	1,270	120	2,372	2,820	4,234	8,033	9,433	10,105	13,599	12,234	16,375	11,265	8,531	10,502
3월	1,475	3,376	3,222	3,160	8,895	9,519	14,228	18,808	25,986	27,918	21,541	21,339	19,501	18,689
4월	355	6,950	7,800	8,333	11,050	33,314	55,482	72,464	74,495	77,767	76,699	79,017	89,699	75,917
5월	5,512	9,424	10,200	10,483	11,600	29,401	51,149	67,281	60,481	46,967	67,032	53,960	73,130	37,232
6월	630	5,013	11,770	6,855	7,600	14,144	28,472	32,185	27,724	23,337	17,712	28,090	24,250	19,192
7월	8,318	7,811	7,000	9,064	10,595	15,599	25,252	48,194	24,241	19,483	13,586	21,155	20,254	16,345
8월	12,167	2,498	4,750	16,712	26,830	27,786	43,288	59,357	42,730	29,628	28,074	26,095	24,480	19,775
9월	5,514	2,667	5,206	6,245	9,605	12,344	25,655	29,125	25,618	21,973	13,895	17,929	15,165	17,151
10월	12,718	5,074	4,200	7,638	11,973	44,150	30,445	23,202	29,661	29,254	27,761	23,297	32,398	18,741
11월	3,753	4,198	4,100	5,740	6,885	35,830	30,585	15,251	20,822	20,529	14,835	14,394	14,843	15,991
12월	1,831	5,236	4,100	4,178	4,466	19,885	14,537	11,122	12,780	10,597	10,692	9,703	10,586	9,875
합계	55,011	52,513	66,978	84,123	120,902	255,583	335,235	401,652	369,021	338,872	317,911	316,018	344,662	267,939

자료 출처 : 2020년 2월 현재,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청산도 방문객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간의 수치만 제공되고 있는 2004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연구자가 재처리하였음(기울임체는 4월보다 방문객 수가 많은 수치임)

위의 <표 1>에 의하면 청산도 방문객 수는 청산도가 슬로시티로 인증된 2007년부터 증가

세를 보이지만 인 증은 그 해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7년의 증가는 청산도가 이전부터 꾸준히 <서편제>촬영지라는 사실을 홍보해온 데다가 스타PD 윤석호의 계절시리즈 마지막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텔레비전드라마 《봄의 왈츠》가 2006년 청산도에서 촬영되어 방영되었던 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 관광객 수의 대폭 증가는 슬로시티 인 증이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총 관광객뿐만 아니라 4월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여 슬로걷기축제가 관광객을 청산도로 불러들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별 관광객 추이를 보면 그런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슬로걷기축제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5월, 8월, 10월에 관광객이 많아 봄가을 나들이철과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많은 일반적 관광동향과 비슷하다. 2009년 제1회 때는 청산도에서 하루만 개최되었기 때문에 축제의 영향이 거의 없었고, 2010년에는 4월에서 5월 초까지 23일간 실질적인 제1회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했지만 10월에도 16일간 청산휴가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기 때문에 4월보다 10월에 관광객이 더 많았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청산휴가어울림한마당이 4일간으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슬로걷기축제가 청산도의 대표 축제로 정착되면서 본격적으로 4월 슬로걷기축제에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4월 관광객 수가 다른 달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4월 관광객 수가 가장 비수기인 1, 2월의 7-8배에 이르거나 심지어 10월 관광객 수의 3배가 넘을 때도 종종 나타났다. 2013년부터는 청산도 총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4월 관광객 수는 201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청산도 총 관광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월별 비율로 보면 4월 관광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 이상의 관광객 수 추이를 보았을 때 슬로걷기축제가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를 견인한 직접적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슬로걷기축제가 관광객 수치로 보여주는 성공은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축제가 슬로시티 정신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주민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고 축제를 기획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없는 여건 하에서 한 달간이나 축제를 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특히 4월 관광객 쏠림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축제기간 내내 각종 불편을 감내해야 하고, 환경과 자연 훼손 또한 심각하다. 관광객 역시 차별하고 여유롭게 관광을 즐기기가 어렵다. 주민들이 축제기간만을 바라보고 생업을 관광업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축제기간 이외에는 그나마 한시적으로 열리던 매점 등 편의시설마저 이용하기 힘들다. 정작 관광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밀집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삶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견지 않는 걷기 축제의 운영은 슬로시티 청산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섬에 있는 슬로시티로서 육지의 슬로시티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 관광목적 지로서의 매력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총 관광객 수에 있어 2012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로 2013년부터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³³⁾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

33) 2017년 관광객 수가 약간 증가한 것은 이전까지는 2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던 것에서 '퀵 청산호'를 추가 취항한 것과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로 연계 관광이 이루어진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슬로걷기축제는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컨셉을 잘 잡아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운영 방향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내적 충실화와 장기화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제1회 슬로걷기축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 개최할 때의 취지는 ‘여유로운 걷기 축제’를 컨셉으로 하고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청산도 내의 외부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고³⁴⁾ 관광객들이 함께 청산도를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제1회 축제를 마친 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을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슬로걷기축제는 결국 걷지 않는 축제가 되어버렸고 청산도는 짧은 시간 차량으로 드라이브하기 좋은 관광목적지가 되어 버렸다.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 당일관광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과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는 더욱 힘들며 관광객에 의한 자연 훼손과 쓰레기 양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축제를 이끌어갈 자체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달간 지속되는 요란하고 번잡한 축제가 아니라 슬로시티 본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그것에 어울리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해역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한 제언

과거 육지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던 연구자들의 관심이 해양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해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주목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해역을 구성하는 바다와 섬과 연안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중첩적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섬과 바다와 육지의 연결이라는 해역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청산도 슬로관광에 주목하였다. 즉 청산도가 슬로시티, 슬로길, 슬로걷기축제로 구성되는 슬로관광을 매개로 방문객을 통해 육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양상과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슬로관광이 사람들의 관심을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시키고 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해역네트워크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산도는 완도해역을 구성하는 유인도의 하나로,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까지는 고등어과시로, 1960-1970년대에는 삼치과시로 일본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어선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1980년대부터는 남획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넘쳐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고즈넉하고 한적한 섬이 되었다. 하지만 다시 영상매체와 섬 가꾸기 사업의 힘을 빌려 귀중한 자원과 자산들을 발굴해내고 청산도의 특성과 분위기에 맞는 슬로라는 테마를 내세워 슬로시티 인증을 받고 슬로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여 육지 사람들을 청산도로 불러들이고 있다. 슬로시티로 인증 받으면서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는

34) 오동훈·홍정의(2009) 『도시행정학보』제22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pp.283-284 참고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면서 25만 명, 35만 명을 넘겼고, 급기야 40만 명을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광은 대부분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슬로길을 걸으며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한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는 관광’과는 먼 대중관광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면서 증가했던 관광객 수가 2013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청산도의 특성에 맞는 슬로 테마 발굴, 슬로시티 인증, 슬로시티에 어울리는 슬로길 조성, 그리고 슬로길을 활용하는 슬로걷기축제 개최에 이르는 일련의 기획은 좋았으나 실제 운영은 기획의도를 구현하지 못해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동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초기의 기획대로 슬로시티, 슬로길, 슬로걷기축제가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내게 하지 못한 채 한 달간의 축제에 집중하면서 관광객 수의 양적 팽창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선의 여지도 희박해 보인다. 인구 2천여 명의 작은 섬, 그마저 고령화가 심각한 섬에서 한 달 간 7-8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슬로 정신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일이다. 축제는 육지와와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유희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슬로시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청산도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전달하는데 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섬과 해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과거 어족자원의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면서 청산도로 몰려들던 어선과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잊혀졌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청산도가 소모되고 외면당하는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육지에서 섬으로 옮겨오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해역네트워크는 지속될 수 있는데, 청산도의 슬로관광에 있어서는 슬로시티의 정신을 살리는 것, 슬로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즐기는 느끼고 작은 축제를 여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철(2010), 『올레감수광』, 컬처플러스, pp.1-336.
 강봉룡(2016),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 景仁文化社, pp.1-290.
 김준(2014), 『섬문화답사기-완도편』, 보누스, pp.1-599.
 모모키 시로 엮음·최현식 옮김(2019), 『해역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pp.1-396.
 신정일(2010), 『가슴 설레는 걷기 여행』, 랜덤하우스, pp.1-447.
 주희춘(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pp.1-384.
 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2015), 『해안누리길-이야기 따라 걷는 길』, 하이미디어피앤아이.
 정성문(2013), 『슬로시티 라이프 사이클 지표 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전략-슬로시티 증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경영 및 관광 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6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2016.6), 『전라남도 도서종합개발계획 발전방향』, pp.1-268.
 문화체육관광부(2011),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pp.1-292.

- KSA한국해운조합(2019.9), 『2019 연안해운통계연보』, pp.1-219.
- 곽수경(2017), 『영상매체에 나타난 청산도 이미지 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제20권 1호, 역사문화학회, pp.295-320.
- _____ (2017), 『청산도의 <서편제> 마케팅과 슬로마케팅』, 『동북아문화연구』제5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171-186.
- 박경문 · 조영태 · 최상희 · 장인석(2008), 『국내 슬로시티 발전방안 연구』, 『地理學研究』제42권 제2호, 국토지리학회, pp.237-253.
- 박희정 · 장희정 · 손대현(2008), 『슬로우 투어리즘 참가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제20집 제2호,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pp.43-63.
- 오동훈 · 홍정의(2009), 『도시행정학보』제22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pp.267-294.
- 정경희 · 김소중 · 김채령 · 한이화(2013), 『지속가능한 도보여행으로서의 인천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교류연구』2-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pp.141-163.
- 최성환(2017), 『일제강점기 청산도 고등어 어업의 실태와 영향』, 『서강인문논총』50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15-254.
- 한지숙 · 손대현(2010), 『슬로시티 매력 분석-청산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제25권 제2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1-19.
- 윤명철(2005.8), 『동아지중해, 장보고의 나라』, 『월간말』, pp.102-107.
- about 전남의 섬 http://islands.jeonnam.go.kr/viewer/A_isle/isle/view.aspx?isle_idx=30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http://mokpo.mof.go.kr/content/view.do?menuKey=383&contentKey=116>
- 한국슬로시티본부 홈페이지 <http://www.cittaslow.kr/kor/>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 완도군청 홈페이지 <http://www.wando.go.kr/www/introduction/intro/cheongsan/condition>
- 『문화일보』2013.7.5.
- 『경향신문』2013.9.1.
- 『연합뉴스』2016.6.18.
- _____ 2017.4.30.
- 『전북일보』2016.10.28.
- 『프레시안』2020.2.3.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해역네트워크, 청산도, 슬로관광, 슬로시티, 슬로길, 슬로걷기축제 the Sea Region Network, Cheongsando island, Slow Tourism, Slow City, Slow Path, Slow Walking Festival
<p>Slow Tourism in Cheongsando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a Region Network</p> <p style="text-align: right;">Kwak, Su-Kyoung</p> <p>If a certain area on the sea is called a sea region, the islands, the coast, and even the inland, which are connected and influential to it can be called the Sea Region Network. Recently, the island has attracted attention like a marine territory,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a fascinating tourist spot. In particular, as people’s leisure styles diversify and demand island travel increases, links with land are also increasing. A typical example is Cheongsando island located in Wando.</p> <p>Cheongsando island, located at the southernmost tip of Dadohae, requires a one-hour boat ride from Wando port and is less accessible. However, it continued to publicize the Cheongsando island by making natural resources such as natural beauty, Gudeuljangnon (Gudeuljangnon; paddy field is imitative of Korean floor heating system), Chobun(Chobun; cover the body with grass to make a tomb, leave it for a year or three, and bury the bone again), and Haenyeo (Haenyeo; female diver) as common assets and putting beautiful natural scenery in video works. It was also recognized as Asia’s first Slow City, drawing attention from people on land. It succeeded in creating a network with land by creating a Slow Path, holding a Slow Walking Festival and bringing them in.</p> <p>In this regard, this manuscript focused on Slow Tourism in Cheongsando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a Region Network that leads to the island-sea-land. In other words, Cheongsando island is recognized as a Slow City and has created a Slow Path, and the Slow Walking Festival is attracting land people to Cheongsando island.</p> <p>These three elements, combined under the theme of “Slow,” are viewed as a direct means of forming and operating a network with land, while constructing Slow Tourism. Their meanings and role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were analyzed and their sustainability was sought.</p>	
필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콧수경 (한자): 郭樹競 (영문): Kwak, Su-Kyoung 국문제목: 해역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청산도 슬로관광 영문제목: Slow Tourism in Cheongsando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a Region Network 소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525ksk@naver.com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 2020. 02. 15. 심사일 : 2020. 02. 22. 심사완료일 : 2020. 03. 02.

КСІ